

공보육기관 운영의 불교적 요소에 관한 연구

나 정

동국대학교

김 영 연

동국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불교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공보육기관에서 표준보육과정 운영 책무와 불교적 요소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탐색해보고, 향후 증가할 소지가 많은 불교계의 공보육기관 운영에 시사점을 얻고자 시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불교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서울시내 공립보육시설을 선정하여 2010년 9~10월 사이에 걸쳐 80시간을 관찰하고, 종사자 12명과 어린이 6명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기타 보육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연꽃어린이집(가칭)은 공공재정을 지원 받아서 운영하는 공립보육기관의 기본적인 책무인 표준보육과정을 기관 운영의 중심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표준보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기본생활습관 교육, 텃밭 가꾸기, 지역사회와의 연계활동 등에 못 생명의 소중함과 연기, 자리아타의 보살행 등과 같은 불교적인 가르침을 연계하여 교육하고 있었다. 또 친환경 급식 제공, 교사의 명상활동, 몇 가지 작은 불교적 상징 등이 포함된 실내의 보육환경 등에도 불교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었다.

이 공립보육시설의 운영 사례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불교복지재단의 공보육기관 위탁운영이 영유아 보육이라는 국가 사회의 공익을 도모함과 동시에, 불교의 사회복지 구현에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향후 증가할 공보육기관의 위탁에 불교계가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핵심 주제어: 공보육기관, 표준보육과정, 불교

I. 서론

현대 산업 사회에서는 핵가족화와 취업여성의 증가 및 그로 인한 자녀양육기능의 약화 등으로 보육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제발전에 따른 생활수준 향상으로 부모들의 유아기 자녀에 대한 조기교육 욕구가 높아지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인적자원의 조기개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양극화 현상의 심화와 결혼 가정의 증가 등은 인지적 능력의 고양뿐 아니라 인성교육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사회변화에 따른 이 현상들은 이제 각 가정의 자녀 양육 문제가 더 이상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 차원의 문제임을 극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사회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범정부적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통령자문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영유아 보육과 교육을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다루고 있으며, 최근 정부 예산 증가가 가장 많은 분야도 바로 이 영유아보육과 교육 분야이다.¹⁾

영유아보육과 교육 관련한 국가적 차원의 과제 해결에는 종교계도 동참하였다.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연석회의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을 비롯하여 주요 종교단체의 장과 사회 각계각층의 대표자가 위원으로 참여하여 영유아보육과 교육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사회협약을 결행하였다. 이 협약의 내용은 저출산고령사회의 기본계획인 『새로마지 플랜 2010』에 반영되어 곧바로 정책으로 추진되었는데 자녀 양육수당의 지급, 육아휴직 수당의 증액,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 무상교육비와 보육료의 확대 등이 바로 그것이다.²⁾ 이러한 정부의 계획과 관련하여 국·공립 보육시설의 민간 위탁 시 보육시설 운영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업무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비영리 단체 등을 개인보다 우선순위로 고려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³⁾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따르면, 향후 공보육기관의 증설이 확대되고 새로 증설한 공보육기관은 개인보다는 비영리법인과 단체에 위탁될 소지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찰이 설립한 복지재단이나 불교단체가 국·공립보육시설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회는 점차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불교계는 초기 우리나라의 유아교육 발전에 큰 공헌을 해왔다. 예를 들어 강원도 3대 본산인 월정사, 유점사, 건봉사가 공동으로 강릉 관음사 내에 설립한 금천 유치원은 1922년에 정식인가를 받아서 운영을 시작하였다. 이 금천유치원의 설립 취지와 목적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랑하는 아들딸들의 마음에 심어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하게 하며, 어린

1) 관계부처 합동,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2011-2015) 기본계획 시안 주요내용』(대한민국정부, 2010), 9-12쪽.

2) 대한민국정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새로마지 플랜 2010』(대한민국정부, 2006), 52-54쪽.

3) 서문희·신나리·이은영,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 강화 방안』(여성가족부, 2007), 22쪽.

이를 보호하고 어린이의 심리와 의사를 존중하여 부처님께 경배하는 어린이를 교육 한다” 는 것이었다. 또 스님이 직접 원장과 원감을 맡았다.⁴⁾

우리나라의 초기 유치원 설립을 주로 기독교 선교사들이 주도했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사찰 주도의 금천유치원의 설립과 스님들이 직접 운영은 실로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후에는 유아교육에 대한 불교계의 관심이 미약해진 탓인지 2005년의 경우 불교계 유아교육기관은 유치원 229개원 보육시설 189개소로 나타나고 있다.⁵⁾ 불교계의 유아교육기관 운영 수는 이 분야에 늦게 진출한 원불교와 천주교의 유아교육기관 수와 비교해서도 큰 차이가 없다. 원불교는 508개 교당 중 141개소(27.8%)가 유아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고,⁶⁾ 천주교는 전국 1,511개소 중 332개소(22%)가 유아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다.⁷⁾

종교단체가 영유아보육과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영유아를 위한 기관의 설치와 운영을 종교사회복지 영역의 가장 중요한 사명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교계도 기존의 어린이 불교교육과 포교에 대한 관심을 더욱 확대하여 법인을 수립하여 보육시설을 위탁을 받거나, 사찰 직영체제로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또 불교교리나 수행방법을 어린이 교육과정에 접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작업도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⁸⁾

그러나 종교재단이나 단체가 공공기관을 위탁 맡을 경우에는 한 가지 과제가 발생한다. 교육활동에 종교적인 요소를 가미하고자 하는 경우, 기관의 공공성 실현 책무와 종교적 가르침 구현과의 관계를 잘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공보육기관의 경우에는 예·결산의 투명한 집행과 함께 표준보육과정을 운영해야 하고 평가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 등이 공공성 책무와 관련된 대표적인 업무이다. 표준보육과정은 보육활동의 근간이 되는 것이고,⁹⁾ 평가인증은 보육환경과 자료 및 상호작용에 이르기까지 보육시설의 모든 사항을 점검 받아서 획득하는 것이다.¹⁰⁾ 이와 관련하여 원불교유아교육협의회에서도 원불교 유아교육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으로 교화와의 연계 부족으로 인한 내적 정당성 확보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¹¹⁾

4) 황옥자, 『불교아동교육론』(서울: 불교시대사, 2007), 87쪽.

5) 황옥자, 위의 책, 88쪽.

6) 서윤, 『영유아복지 증진을 위한 원불교 보육 실태와 과제』, 『영유아보육을 위한 종교계 사회복지의 실태와 과제』(재단법인 청호불교문화원 제6회 사회복지학술세미나 자료집, 2008), 112쪽.

7) 박상란, 『영유아복지 증진을 위한 가톨릭 보육의 실태와 과제』, 『영유아보육을 위한 종교계 사회복지의 실태와 과제』(재단법인 청호불교문화원 제6회 사회복지학술세미나 자료집, 2008), 79쪽.

8) 권은주·강성희, 『불교 생명존중 유아교육프로그램』(서울: 양서원, 2003); 김지현, 『불교명상프로그램을 통한 유아정서발달연구』(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3); 이수경, 『어린이 인성교육을 위한 자연명상 프로그램』(서울: 양서원, 2006).

9) 보건복지부, 『제29조 보육과정』, 『영유아보육법』(보건복지부, 2010).

10) 보건복지부, 『제31조 평가인증의 실시』,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보건복지부, 2010).

11) 김오순, 『원불교와 아동교육』, 『종교와 아동교육』(한국종교교육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009), 100쪽.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불교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공보육기관에서 불교적인 요소를 어떻게 보육활동에 포함하여 구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공보육기관의 표준보육과정 운영 책무와 불교적 요소가 서로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지를 살펴서 향후 증가할 소지가 많은 불교계의 공보육기관 운영에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참여 관찰과 심층 면담 및 여러 가지 자료들을 수집 분석하여 수행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보육 관련 각종 문서 자료, 참여 관찰 중 이루어진 비디오 녹화 자료, 연구자 일지, 교사면담 자료 등 이다.

수집한 자료는 3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는데 먼저 범주화 작업과 도출된 주제어들에 대한 일치도 검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하여 비디오 녹화 자료와 전사한 자료를 대조 확인하고, 이를 다시 연구자 일지와 날자 별로 대조 확인하였다. 이렇게 일치도 확인 작업을 한 이후에는 비디오 녹화 자료와 전사 자료 및 연구자 일지를 분석하여 유목화한 주제와 내용을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두 명 연구자가 협의하여 유목화한 주제와 내용을 통합하였다.

1. 연구기관의 선정 및 특성

본 연구를 위한 참여 관찰과 면담을 위해 선정한 공보육기관은 구립연꽃어린이집이다. 이 어린이집은 2005년에 서울특별시 00구청이 설립한 구립 보육시설로 대한 불교 조계종 00사의 복지재단이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9년에 우수 보육시설로 선정되었고, 보건복지부의 평가인증을 받았으며, 서울시의 서울형 어린이집으로도 인정을 받았다. 2010년 현재 전체 보육 아동 수는 105명이며 영아반(만 0세~2세) 3개반 총 34명, 유아반(만3세~4세) 3개반 53명, 유치반(만5세) 장애아 통합이 한반 14명이며, 보육 아동의 30% 정도가 정부로부터 저소득층 보육료지원을 받고 있다. 보육아동 가정의 종교 분포는 시설장과의 면담 시 확인하고자 했으나, 사찰 위탁시설이라서 종교를 조사하면 부모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것을 염려하여 조사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약 20%가 불교 가정이고, 기독교 가정도 많다고 하였다(2010.9.3. 시설장 면담).

종사자는 시설장과 보육교사, 조리사, 사무보조원 등을 포함하여 모두 15명이며, 불교신자가 6명, 기독교가 4명, 무종교가 5명이었다. 보육교사 자격 소지자는 5명이고,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 자격을 모두 소지한 교사가 5명이었으며, 경력은 1년 반부터 10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이 어린이집은 지하 1층 지상 3층의 단독 건물이며 지은 지 5년 된 건물로 이번 여름에 내부 페인트칠과 옥상 방수 작업을 새로 하여 매우 깨끗해 보였다. 지하에는 식당과 자료실 및 치료실이 있고, 일반 보육교실 7개, 특별교실 1개, 작은 자료실 2개, 교무실 겸 서무실이 있다. 옥상에는 실외 놀이기구와 모래놀이터 및 텃밭이 조성되어 있으며, 여름철에는 물놀이장도 설치한다. 실외놀이터는 없었으며 벤치와 나무 몇 그루가 있는 조그만 공원이 담과 연결되어 있었다.

원훈은 “자비와 지혜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어린이”이다. 불교의 가장 중심이 되는 철학이자 가르침인 자비와 지혜를 기관보육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과의 완전 통합교육을 통해 자비를 실천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어린이로 보육하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었다.

또 이 어린이집은 생활협동조합 법인인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에 가입하여 친환경 먹거리를 급, 간식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쌀과 채소 일부를 제외한 거의 모든 식 재료를 친환경 물품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또 아동을 생활협동조합에서 제공하는 농촌체험에 참여시키고, 교사들은 다양한 생태유아교육 연수에 참여하고 있었다.

일상적인 보육활동은 정부가 제시한 표준보육과정을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들의 요구를 반영한 몇 가지 프로그램 - 음악 감상, 명상, 텃밭 가꾸기, 요리활동, 세시풍속, 생태교육 등 - 을 특성화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2. 연구 방법 및 자료수집

연꽃어린이집의 일상을 관찰하기 위해 먼저 종사자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사전 활동을 시도하였다. 실제 관찰은 2010년 9~10월에 실시하였지만, 4월에는 교사들이 참여하는 연수에 동참하고, 5월과 6월에는 어린이들이 농촌체험을 하는 현장에도 함께 참여하였다. 또 관찰을 실행하기 직전에 교사와 시설장을 다시 만나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였다.

관찰과 면담을 실시하고 자료를 수집한 실제 연구 기간은 2010년 9월6일-10월4일까지 이었다. 교사들과의 면담은 점심 식사 후 아동들이 낮잠 자는 시간과 원내 청소시간을 이용하였으며, 비구조화 된 질문지를 개별적으로 실시하였다. 면담 시간은 1인당 4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면담 내용은 교사들의 허락을 구한 후 녹음하여 전사하였다. 전사본은 글자 크기 10포인트로 A4용지 30장 분량이었다. 교사 이외에 시설장, 조리사, 사무원 등과도 면담을 하였다.

참여 관찰은 만 5세반으로 장애아 통합을 하고 있는 자비반에서 실행하였으며, 보육활동을 녹화하였다. 또 필요한 자료는 시설장의 양해를 얻어 수집하고 복사하였다. 이상에서 기술한 사전방문과 관찰 및 면담, 자료 수집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 방법 및 실행 시간

연구방법	실행 시간	횟수
사전 만남	5시간 (4월, 5월, 6월)	3회
예비 관찰	3시간 (9월)	1회
참여관찰	총 80시간: 주로 오전 9시~오후7시 사이에 실행 (경우에 따라 부분 관찰도 실행)	10회
면담	총 6시간: 교사 8명과 시설장: 30분~1시간 소요 조리사, 사무원: 20분~30분 소요 유아 6명: 10분~15분간 소요	19회
기타 자료수집	·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 일일보육일지 · 식단 · 통학보육일지 · 가정통신문 · 어린이집홈페이지	수시

3. 관찰 대상반의 하루 일과

본 연구에서 자비반을 관찰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자비반’이란 이름 때문이었다. 이름부터 불교적인 요소를 담고 있어서 공보육기관의 특성과 불교적인 요소를 잘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자비반은 9명의 장애아와 일반 아동 5명을 두 명의 교사가 보육하고 있는데 하루 일과는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이다. 문서상으로 나타나는 하루 일과는 다른 보통반과 거의 유사하며, 심화활동으로 국악, 과학, 영어, 현장 학습 등을 실시하고 있었다.

Ⅲ. 연꽃어린이집 보육과 운영의 불교적 요소

연꽃어린이집 운영과 자비반의 보육활동을 관찰하고, 교사를 비롯한 다양한 종사자들과 어린이들을 면담한 결과를 분석하여 연꽃어린이집의 불교적 요소를 찾아보았다. 그 결과 연꽃어린이집에서는 표준보육과정을 근간으로 운영하되 불교적 가르침을 연관된 보육활동에 접목시켜서 활동을 전개하고, 급간식이나 환경 구성, 교사 활동 등과 같은 운영 측면에도 불교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었다. 이를 유목화 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표준보육과정 운영에 내포된 불교적 요소

1) 기본생활습관 교육을 통한 육바라밀의 실천

기본생활습관이란 아동이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있어서 요구되는 기본적인이고 필수적인 행위를 말한다. 유아기는 인성과 기본 생활태도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은 더불어 사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개개인의 기본 생활태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형성되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기본생활습관 교육이란 관습과 전통의 형태로 이어져 내려온 사회적 규범과 원리에 따라 행동하고 또 현재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삶의 양식에 적응하여 행동하도록 돕는 것은 물론, 성장하는 인간이 자신의 인격을 관리하는 안목과 능력을 돕는 일이다. 따라서 기술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도덕적인 정신과 지식을 내면화하여 실천 하도록 교육할 때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표준보육과정에서도 6가지 영역 중 기본생활을 가장 먼저 제시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 건강, 안전, 바른 생활을 기본생활영역의 내용으로 선정하고, 그에 관한 지식과 기술 및 태도를 배우고 익히며 올바른 습관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유아기에 몸에 익혀야 하는 기본생활습관은 식사·수면·배설·청결·옷 입고 벗기를 비롯해서 안전·예절·질서·절약 등이며, 이들 습관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함과 동시에 자립성과 독립성을 기르는 데에도 기본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불교의 가르침 중 육바라밀과 매우 흡사함을 알 수 있다. 인간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덕목으로 자신을 이롭게 함과 동시에 타인도 함께 위하는 이타행의 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연꽃어린이집에서는 보육 아동들의 기본생활습관 교육을 매우 강조하여 매달 한 가지씩 교육주제를 정하고, 매 주마다 한 가지씩 구체적인 습관을 제시하여 이를 교육하고 있었다. 또 기본생활습관을 훈육적인 방식으로 교육하지 않고 그달의 특성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교육하고 있었다. 아동들이 새로 기관에 들어오는 달에는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도록 하고, 어버이날 등 가정의 달에는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다. 연간 계획안에 나타난 기본생활습관 교육주제는 배려, 절제, 사랑, 존중, 기쁨, 경청배려, 공경, 감사, 긍정, 인내, 책임, 창 의 등이었다.

육바라밀은 보시, 기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로 사회적인 특성을 담고 있어서 남과 더불어 사회생활을 잘 해나가려면 반드시 익히고 실천해야 할 가르침이다. 탐내지 않고 베푸는 보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하지 않는 지계, 참고 용서해주는 인욕, 해야 할 일을 노력하는 정진, 의지를 단련하여 중생을 이롭게 하는 선정, 연구하고 배우는 지혜가 바로 육바라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꽃어린이집이 기본생활습관을 위한 교육주제로 선정한 배려, 절제, 존중, 사랑, 인내 등과 같은 것들은 육바라밀과 밀접하게 연계된다. 연꽃 어린이집이 선정한 기본생활습관 교육주제를 육바라밀과 연관시켜서 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기본생활습관 월별 교육주제와 육바라밀과의 연계

월	주제	불교적 요소	월	주제	불교적 요소
3	배려	보시, 지계	9	공경	지혜
4	절제	인욕	10	감사	보시
5	사랑	보시	11	긍정	정진, 선정
6	존중	지계	12	인내	인욕, 지계
7	기쁨	인욕, 선정	1	책임	정진, 인욕
8	경청	인욕, 지혜	2	창의	지혜

더구나 이 기본생활습관 교육은 실제 어린이들의 일상에서도 잘 실천되고 있었는데 자비반의 장애아와 일반아동의 행동이 이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바깥놀이를 하는 시간이었다. 자비반 친구들이 밖으로 나가기 위해 신발을 신고 줄을 서서 친구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유아 1: 어, 내가 도와줄게.

유아 2: 공공 거리며 신발을 만지고 있다(신발 뒤쪽이 꺾여서 들어가지 않고 있었음).

유아 1: (내가 도와줄게 하며 신발 뒤축을 펴준다.) 자 이제 됐지?

유아 2: 응(아주 작은 소리로 말하고 현관문에 기대서서 자신의 신발을 계속 바라보고 있다.)

(2010.9.10. 관찰일지)

유아 1은 일반 아동이고 유아 2는 장애아였다. 연구자는 이 장면을 관찰하면서 연꽃어린이집의 원훈이 “자비와 지혜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어린이”라는 점을 떠올렸다. 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원훈으로 하고 있는 기관의 자비심을 가진 지혜로운 어린이가 친구를 배려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불교재단 기관의 불교적 교육방침과 국가 표준보육 과정에 의한 보육활동의 가르침이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2) 텃밭 가꾸기를 통해 못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내면화하기

세계 각국이 지구의 생태위기에 대해 주목을 하기 시작한 것은 1972년도에 발표된 로마클럽의 보고서이다. 이후에 스톡홀름 유엔 인간환경회의가 개최되었고 1992년에는 역사적인 “유엔 환경과 개발 회의”가 개최되어 지구 온난화와 오존층 파괴, 생물종 다양성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회의를 통해서 세계는 생태위기시대를 해결하기 위한 처방을 동양적 사상, 특히 개인의 태도에 변화를 가져다주는 불교에 주목하고 있다.

연꽃어린이집에서는 특성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텃밭 가꾸기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 활동은 텃밭 만드는 준비과정에서부터 심고, 가꾸고, 수확하고, 쉬게 하는 농사의 전 과정

이 포함되어 있다. 또 가꾸는 과정 사이사이에 천연농약을 만들어 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지주를 세워 주고, 잡초를 뽑아주고, 생장점을 잘라주는 등 한 개의 씨앗이나 작은 모종을 키우는데 온갖 정성을 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성장한 채소는 수시로 수확하여 먹기도 하는데 금년에는 이미 상추를 따서 점심시간에 먹었다고 한다. 텃밭 가꾸기 활동은 연간 계획은 다음과 같다.

〈표 3〉 텃밭 가꾸기 연간 계획안(2010)

월	주	활동 내용	월	주	활동 내용
3		텃밭 만들기	9	1	웃거름주기
				2	알타리 무, 무 씨뿌리기
				3	김장배추 모종심기
				4	무 숙고 웃거름주기
				5	배추밭 매고 웃거름주기
4	1	흙, 텃밭상자 만들기	10	1	벼 베기
	2	감자, 잎채소(시금치, 쑥갓) 씨앗 심기		2	고구마 캐기
	3	토마토, 고추, 오이 모종심기		3	보리 심기
	4	숙아주기, 모 심기, 옥수수 모종 심기		4	마늘씨앗, 시금치 심기
5	1	웃거름 주기. 액비 주기	11	1	양파 모종심기
	2	시금치, 쑥갓 수시로 수확		2	알타리 무 수확하기
	3	지주세우기(토마토, 고추, 오이)		3	김장 무 수확하기
	4	결눈 따기(토마토, 고추, 오이)		4	한해 농사 정리, 평가하기
6	1	토마토, 고추, 오이 수시로 수확	12	1	흙 놀이
	2	감자 웃거름주기		2	
	3	고구마 순 심기		3	
	4	천연농약 만들기		4,5	
7	1	벌레잡기	1	1	퇴비 만들기
	2	감자 수확하기		2	
	3	아침저녁으로 물주기		3	
	4	토마토 생장점 자르기		4	
	5	아침저녁으로 물주기			
8	1	아침저녁으로 물주기	2	1	휴작(다음 해 농사를 위한 휴식)
	2	잡초 뽑기		2	
	3	옥수수 따기		3	
	4	가을 작물로 텃밭 만들기		4	

그러나 이 텃밭은 어린이집에 땅이 없어서 옥상에 마련한 것이었다. 연구자가 옥상에 올라가서 보니 모래놀이터의 둘레에 흙을 두어서 텃밭을 만들었는데 토마토, 고추 등이 자라고 있었다. 올해는 특별히 모도 심었는데 네모난 큰 플라스틱 통을 이용해서 심고 있었는데, 연구자가 보기에 이 텃밭은 아주 웅색한 것이었는데도 어린 영아들과 장애아를 모두 포함하여 전체 보육 아동들이 참여하고 있었다.

영아들도 옥상 텃밭에 가서 유아반이나 유치원반이 하는 것과 같은 활동을 해요. 아무래도 영아들이라서 어렵긴 하지만 손으로 모종을 땅에 심고 흙도 꼭꼭 누르라고 이야기 해주고, 물도 주고 그랬어요. 영아들도 텃밭활동을 꾸준히 하니깐 나중에 반찬으로 나오거나 간식으로 먹을 때는 잘 먹고, 자기들이 심은 거라고 말도 하더군요. 저도 흐뭇하고 신기했어요.

(2010. 9.27. 교사2 면담)

장애아 친구들도 모든 활동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요. 텃밭도 그 친구들이 참여해서 흙도 만지고 씨앗도 흙에 놓아보게 하고, 다 참여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요. 감각도 좋게 해 주니까요. 00은 유난히 흙 만지는 것을 좋아하는데 흥분해서 다른 친구들에게 방해가 되면 나중에라도 참여 할 수 있게 해요.

(2010.10.17. 교사면담)

그런데 텃밭 가꾸기는 어린이들의 지적, 정의적, 신체적 발달을 위해서도 매우 가치 있는 교육활동임을 알 수 있다. 직접 자기 손으로 텃밭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가꾸어 채소를 길러 봄으로써 생명의 신비감을 느끼며, 흙의 생명력과 소중함, 계절의 변화와 자연계의 순환원리, 노동의 가치와 수확의 보람, 생명의 가치와 생명체의 역할, 먹거리의 중요성, 기다림의 의미 등을 몸과 가슴으로 느끼게 해주기 때문이다.¹²⁾

텃밭 가꾸기 활동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텃밭에 흙을 고르고 씨앗을 뿌리면 싹이 트고, 김을 매고 물을 주면 자라고, 다 자라면 수확을 하게 되는 전 과정을 직접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명의 성장을 몸으로 체험하면서 어린이들은 한 개의 작은 씨앗이 다시 새로운 생명을 담은 여러 개의 씨앗을 남기는 번식 과정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은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자연계의 순환원리를 경이롭게 받아들이고 텃밭의 식물들을 통해 자연과 생명에 대한 공경과 사랑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다음에 제시한 자비반 어린이의 면담내용은 텃밭 가꾸기 활동을 통해 무엇을 느끼고, 알게 되고, 실행하게 되는지를 잘 나타내준다.

텃밭에 가세요 씨앗을 심었는데 토마토도 열리고 상추도 열렸어요. 우리가 심어서 맛있었어요. 흙을 만졌는데 따뜻했어요. 잘 자라라고 기도도 해 줬어요.

(2010. 9.24. 유아1 면담)

12) 임재택, 『생태유아교육 개론』(서울: 양서원, 2005), 360쪽.

텃밭 할 때요 흙이 씨앗도 자라게 해서 꽃도 피구요. 꽃이 자라면 벌이 꿀을 먹어서 꿀도 만들 어주니까 좋았어요. 그러구요 열무 심었는데 잘 자라서 그것도 맛있게 먹었어요.

(2010. 9.24. 유아2 면담)

텃밭 가꾸기에 참여한 이 어린이는 작은 씨앗의 성장을 위한 정성어린 마음과 태도도 보여주고, 흙과의 긍정적인 신체적 교감, 흙의 생명력 인식, 자신의 노력에 따른 성취감 등을 통해서 자연과 나와의 관계를 경험하고 있다. 표준보육과정의 자연탐구, 사회관계 및 예술경험영역의 목표 등을 자연스럽게, 또 통합적으로 성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활동 인 것이다. 이러한 텃밭 가꾸기와 관련하여 시설장은 “텃밭 활동은 무의식중에 자연스럽게 서서히 삶에 녹아들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가꾸는 활동을 통해서 말이죠. 이런 게 불교의 가르침인 것 같아요.” 라고 말 하였다(2010.10.4. 시설장 면담).

불교에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삼라만상은 지수화풍의 화합과 분리에 의한 생성 과 소멸이기 때문에 천지여아동근(天地與我同根)이요, 만물여아일체(萬物與我一體)라고 한 다. 즉 세상 만물은 나와 한 몸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비록 옥상에 설치한 매우 웅색한 텃밭이었지만, 텃밭 가꾸기에 참여하고 있는 어린이의 경험은 생명의 소중함과 불 교의 연기사상도 자연스럽게 깨닫게 해주고 있었다.

3)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에서 구현되는 자리이타 보살행

연꽃어린이집 보육활동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은 초과일에 가까이 에 있는 법인 사찰을 방문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동네 복지관의 노인들을 위한 활동, 그리 고 모금활동을 들 수 있다. 연간 계획안 중에서 해당되는 내용을 발췌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지역사회 연계 활동 연간계획안(2010, 부분 발췌)

월	활 동 명	기 관	내 용	일 시
4	사찰 방문	00사	- 지역사찰 돌아보기 - 사월 초과일 연꽃 만들기	년 1회
5	경로잔치	주민자치센터 노인복지관	-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 고마움과 함께 편지와 선물 전해 드리기	년 1회
12	사랑을 나누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알고 돕기	년 1회

지역사회와의 연계활동은 교육적 가치가 크기 때문에 유아교육기관에 권장하고 있는 교육활동이기도 하다. 그러나 본 연구의 관찰기간에는 연계프로그램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직접 관찰을 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자료 수집을 통하여 확인한 몇 가지 활동에 대하여 면담을 통해 소감을 알아보았다. 먼저 초과일에 이루어진 사찰방문 활동에 참여한 교사와 어린이들의 소감을 면담을 통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저는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부처님 오신 날 연등도 아이들과 같이 달고, 절에서 주변에 어려운 분들에게 음식도 나누는데 제가 도와드리기도 하고, 주민 센터에 가서 노인 분들에게 선물을 아이들이 전달하면 어르신들이 좋아하고 기뻐하시는 것을 보면 보람을 느끼죠.

(2010.9.10. 유아반 교사 면담)

부처님오신 날 절에 갔는데요. 절도하고 연꽃도 달았어요. 그리고 소원도 빌었어요. 어떤 소원이었는데 ?하고 (연구자 묻자 유아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우리 엄마아빠가 싸워서 떨어져서 살게 되었어요.. 같이 살게 해달고 빌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제 아빠가 돈을 벌게 돼서 조금 있다가 나랑 엄마랑 아빠랑 같이 살 수 있다고 하셔서 기뻐어요.

(2010.9.30. 자비반 유아 면담)

면담을 통하여 어린이들이 초파일 사찰 방문을 위해 미리 연등 만들기 활동을 했다는 것과 사찰에서는 초파일을 기념하여 어려운 이웃 사람들에게 음식 공양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불교신자가 아닌 교사도 이 사찰방문 활동과 사찰의 음식 나누기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교사와 어린이가 자신들이 행한 작은 일에 대해서 자리타의 보살행이 주는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있음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어린이집은 어린이와 교사들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조리사들도 같이 참여하고 있었는데, 이 동참활동에 대해서 조리사는 매우 자랑스러워하고 있었다.

석가탄신일에 절에 아이들과 함께 가요. 조리사들도 가는데, 준비 같은 것을 같이 도와주고고 하고 학부모들도 만나고 좋아요. 어린이집 말고 다른 곳에 가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좋은 일 하는 것 같아서 기분도 좋아요.

(9월 24일 조리사면담)

한편, 이 초파일 활동을 부모들한테 알리는 안내문에는 초파일 활동이 이웃 사찰과 연계한 불교적인 행사활동뿐 아니라 일상적인 보육활동과도 통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의 가정통신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월17일(월) 지역사회 방문

- 사찰 및 주변 풍경 그리기 - 활동을 하였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방문해서 뵈고 인사를 드리고 법당을 참배해 보는 경험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직접 만든 등을 올려놓았답니다. 이렇게 방문한 기관에 대하여 인사가 끝난 후에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자리를 잡고 사찰의 모습이나 주변의 풍경을 열심히 그려 보았습니다. 활동이 끝나고 엄마가 준비해 주신 맛있는 도시락을 친구와 서로 나누어 먹고 넓은 공간에서 술래잡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열음뎡, 가위바위보 게임 등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외에도 이 어린이집 아동들은 가까운 노인복지관에 가서 공연도 하고 선물을 드리며, 굿네이버스에 추진하는 불우이웃돕기 모금에도 동참하고 있었는데, 자비반 어린이들의 경우 약 70% 정도가 참여하고 있었다.

사실 이 연꽃어린이집에서 불교재단이 운영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들어 내놓고 하는 유일한 활동이 바로 초파일 사찰 방문 활동이었다. 그런데 기독교 신자인 교사들과 기독교 가정의 어린이들도 모두 동참하고 있었다. 또 그 활동이 일상적인 보육과정 활동과 통합되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어린 아동의 교육은 교사가 모범을 보이면서, 통합적인 활동으로, 또 가정과의 협력 하에 이루어질 때에 가장 효과가 크다는 점에 비추어본다면 이 초파일 활동의 교육적, 불교적 의미는 더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초파일 활동을 통해서 사찰과 친숙해지고, 초파일의 의미를 알게 되고, 보살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또 이를 통해서 자리아타의 기쁨을 맛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자가 기관장과 면담하면서 부모들의 불만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기독교 신자인 교사들과 면담하면서도 사찰에 가기가 불편하지 않은지를 확인했지만, 사찰 방문 활동을 그만둘 만큼의 불평은 없다고 하였다. 구성원들의 이와 같은 태도는 향후 공보육기관의 사찰 위탁에 큰 시사를 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보육기관 운영에 포함된 불교적 요소

1) 친환경 급식, 생명의 먹을거리

보육시설은 보육아동의 연령이 어리고 종일 생활하기 때문에 영양과 건강을 위한 안전한 급식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한다. 또 이 급식 시간을 통해 이 시기에 습득해야 할 중요한 교육적 덕목들을 가르치기도 한다. 골고루 남기지 않고 먹기, 감사하며 맛있게 먹기 등을 넘어서 최근에는 친환경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생명교육으로까지 연장하고 있다.

유아기는 인성의 기초가 마련되는 시기로 생명에 대한 윤리의식과 윤리적 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의지를 함양하는 교육이 시작되는 시기이다. 때문에 표준보육과정에서도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목표로 포함하고 있다. 유아교육 현장의 생명교육은 생태 또는 자연 친화, 자연주의 등의 용어로 보육프로그램에 접목되어 실천되고 있는데, 가장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급식과 간식을 친환경 먹을거리로 제공하여 이를 실천하는 기관들이 늘어나고 있다. 기존의 관행농업에 의한 식재료들은 농약을 비롯한 화학재료들로 인해 수많은 생물들을 죽이고 생산되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 그 결과로 인간의 몸을 상하게 하고 땅과 물을 오염 시켜서 환경과 생명운동 단체들에 의해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그 결과 각종 매체에서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급식을 친환경 먹을거리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또 친환경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연꽃어린이집은 친환경 급식

과 간식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친환경 먹을거리 제공에 대한 구성원의 생각을 면담을 통해 알아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는 우리 어린이집이 아이들에게 주는 음식을 친환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큰 자부심입니다. 어머님들도 안심하고 신뢰를 많이 갖고 있는 같아요. 좀 힘들더라도 아이들이 음식을 남기지 않고 잘 먹는 것을 부처님께 늘 감사하고 있어요.

(2010.9.24. 조리사 1)

저는 어린이집에서 주는 음식이 참 좋아요. 친환경급식이라 안심도 되고 비싼 음식이기도해서 아이들이 남기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어요. 농약을 치지 않고 농부들이 정성으로 기른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집에서 먹을 때보다 맛있기도 해서 많이 먹게 돼요.

(2010.9.17. 교사 2)

농약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논에서 지렁이, 개구리 등이 살 수 있고 생태계도 살아나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저희 원에서는 저희가 먹는 쌀이 나는 지역에 직접 농촌체험도 하러 갑니다. 아이들이 좋아하고 저도 다녀오면 농사의 소중함도 다시 깨닫게 됩니다.

(2010.9.17. 시설장)

연구자는 이와 같은 사실을 실제로 확인해보기 위해 점심시간을 관찰하였다. 이날 식단은 깍두기, 된장국, 가지무침, 닭 강정, 조밥이었으며, 이중 채소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에서 제공받은 친환경 먹거리를 사용하고 있었다.

아이들이 천천히 식당으로 들어서서 배식대 앞에서 식판 받아 자리에 앉는다.

조리사: 어서와!! 귀한 음식이니까 남기지 않고 먹어.

교사: 그래, 농약치지 않은 좋은 음식이니까 잘 먹어.

아이들: 예

조리사: 00야! 맛있게 먹어 (혼잣말: 00는 밥 먹을 때 마다 우는데. 밥 먹는 것을 저렇게 힘들어 해서 어떡해. 예구 다 귀한 음식들인데.....밥을 잘 먹어야지.)

아이들이 배식을 다 받고 일제히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먼저 드세요.” 라고 이야기 한 후 밥을 먹는다.

관찰자: “맛있니?”

유아: 예, 맛있어요. 맨날 맨날 맛있어요. 저는 하나도 안 남겨요.

(9월16일 점심시간 관찰)

실제로 이 어린이집이 구입하는 친환경 물품은 장류, 고기류, 우유와 야쿠르트, 유정란 및 빵 등이며, 지불하는 비용은 평균 매월 200~250백만 원 사이이다. 이 금액은 전체 회원시설이 지불하는 금액 중에서도 고액에 속하는 것이었다.

어느 종교나 철학보다도 생명의 경외에 대한 가장 철저하고 적극적이라고 평가를 받는 불교의 생명사상은 생명경시로 인한 생태계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설득력과 논리를 갖추고 있다. 이 불교의 생명사상은 우주의 모든 생명이 한 고리로 이어져 끊임없이 서로 의존하고 서로 관계하는 우주공동체라는 점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자연환경이 오염되면 인간도 오염되고, 생명이 죽으면 인간도 죽게 되며, 환경과 생명이 살아나면 인간도 건강하게 살아나는 우주전체의 상호 의존성과 연관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¹³⁾ 따라서 친환경 먹을거리는 불교의 근본원리인 연기설을 바탕으로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지 않겠다는 불살생의 교리와 너와 내가 모두 이익 되게 하자는 자리아타의 사상을 일상에서 실천하게 하는 것이다. 또 모든 생명간의 연관성을 직접 몸으로 체득하는데 도움이 된다. 연꽃어린이집에서 친환경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이와 같은 불교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교사들의 명상 활동

현대 사회에 들어와 인간의 내면과 마음공부 등이 웰빙 분위기를 타고 생활현장에 자연스럽게 파고들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한 가지로 명상프로그램이 도입 되고 있다. 명상이란 자기 컨트롤 기법으로, 주의 집중법으로, 또 의식단련 등으로 정의를 하지만, 한층 더 높은 의식 상태나 훨씬 더 건강하게 여겨지는 상태에 도달하고자 정신적 과정을 거다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의식적인 훈련이라고 할 수 있다. 명상에는 여러 종류와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그 내용은 니까야에 서술된 것처럼 크게 집중명상과 통찰 명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집중 명상에 의해서는 욕망과 분노로 산란한 마음이 고요해지고 맑아지며, 통찰 명상에 의해서는 분별로 왜곡된 마음이 지혜로 빛나면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대하게 된다고 한다.¹⁴⁾ 많은 연구결과들은 명상은 심리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이끌며 지각의 감수성을 높인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명상은 불안을 덜어주며 특정 공포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고, 명상을 하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인간관계의 신뢰와 자기평가, 자기 컨트롤 및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기실현을 촉진한다는 것이다.¹⁵⁾

그런데 연꽃어린이집에서는 매주 월요일 아침에 전체 교사들이 모여 명상을 하고 보육 활동에 임하고 있었다. 이 아침명상은 주로 조용한 음악과 함께 좋은 글을 낭독하고 고요한 시간을 갖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연구자가 관찰한 교사들의 명상 과정은 다음과 같다.

13) 미산, 『초기경전 강의』(서울: 명진출판, 2010), 109쪽.

14) 안도 오사무, *Psychiatry of Meditation*, 김재성 역, 『명상의 정신의학』(서울: 민족사, 2009), 9쪽.

15) 위의 책, 58쪽.

아침에 교사 한명이 명상시간이 있음을 인터폰을 통해 교사들에게 알린다. 잠시 후 교사들이 2층 썬아트반에 원모양으로 둘러앉는다. 교사 한명이 조용한 음악을 듣다. 당번 교사가 “2010년 10월 4일 아침명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좋은 글을 낭독한다. 명상의 글 낭독이 끝나도 교사들은 눈을 감고 조용히 앉아 있다. 조용한 상태에서 침묵이 흐른다. 다시 당번 교사가 음악을 끄고 명상이 시간이 끝났음을 알려 준다. 음악이 끝난 후 교사 한명이 목과 어깨를 돌리고, 허리도 감싸서 만진다. 다른 한 교사는 손으로 목을 감싸서 돌린다(일종의 스트레칭 동작으로 보임).

시설장: 안녕하세요? 날씨가 쌀쌀해 졌지요? 날씨가 쌀쌀해 졌다고 창문 꼭꼭 닫고 있지 마시고 자주 환기 시켜주세요. 선생님들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행복한 한 주 시작합니다.

교사들: 예, 행복한 한주 되십시오.

시설장이 나가자 교사들은 이번 주에 할 활동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 한다.

(2010.10.4. 관찰일지)

면담 결과 명상에 참여하는 교사들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었다.

월요일이 되면 좀 정신도 없고, 주말을 쉬면 월요일도 좀 있는데 명상시간을 가지면 좀 안정도 되고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아이들에게도 여유롭게 대해지는 것 같아요. 좋은 글을 들으니까 기분도 좋아지고요. 아무래도 월요일 바쁘게 아이들을 맞이하는 것보다 차분히 맞이할 수 있구요.. 명상 할 때는 이 주에 해야 할 일을 차분히 생각하게 되요..

(2010.10.4. 교사11 면담)

사실 월요일 되면 정신없어요. 근데 바쁜 속에서도 교사들하고 명상을 하면 내 스스로 차분해지고 마음도 맑아지는 느낌도 들고, 한 주간 힘들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며 힘을 얻는 시간이기도 해요. 천천히, 그리고 새 출발 모두 파이팅 한다는 느낌 같은 것이 느껴져요.

(2010.9.30. 교사8 면담)

사실 명상은 깨달음에 이르고자 행하는 불교의 수행의 한 방법이다. 지금 여기에서 회광반조(廻光返照, 밖으로 향하는 마음을 안으로 거둬들여 자기 안을 성찰), 여실지견(如實知見, 있는 그대로 느끼고 받아들임), 정념정지(正念正知, 깨어 있는 마음으로 매 순간의 존재현상을 알아차림)하게 되기 때문이다.¹⁶⁾ 그런데 연꽃어린이집의 불교신자, 기독교신자 교사들이 모두 모여 자신을 바로보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어린이들을 생각하며 명상을 하고 한 주일을 시작하고 있었다.

가장 어린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보육교사들은 전문적인 지식과 방법보다도 부드럽고 맑고 밝은 심성과 안정된 태도가 어떤 교사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은 근무시간이 길고 보수가 낮으며 제반 복지의 열악함으로 인해 몸과 마음의 피로가 누적되어 있는 실정이다. 상대적으로 국공립보육시설 교사들의 복지는 양

16) 미산, 앞의 책, 93-94쪽.

호한 편이라서 만족도도 다소 높지만, 유치원교사나 다른 직종에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편에 속한다.¹⁷⁾ 그런데 이곳 교사들은 명상을 통하여 이 모든 여건을 극복하고 어린이들을 마주할 교사로서의 힘을 얻고, 한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정체감도 찾고 있었다.

3) 불교의 상징이 포함된 환경

시설장의 말처럼, 또 연구자가 관찰한 결과도 연꽃어린이집에서 불교적인 요소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연구자는 실내 환경에 은근하게 숨겨진 불교적인 요소를 발견하였다. 식당의 배식대 앞에 작은 동자승과 연꽃 몇 송이가 매달려 있었다(2010.9.16. 연구자 일지).

IV. 결 론

위에 기술한 것과 같이 연꽃어린이집은 표준보육과정을 운영하면서 불교적 가르침을 보육활동에 연계하고, 기타 운영 프로그램에도 몇 가지 불교적인 요소를 포함하여 불교재단 위탁기관으로서의 면모를 살리고 있었다. 앞장에서 기술한 내용을 토대로 결론과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꽃어린이집은 공보육기관으로서의 책무 이행을 가장 비중 있게 실행하고 있었다.

관찰을 부탁했을 때에 시설장은 연꽃어린이집이 그냥 보통 공립보육시설임을 강조하였다. 공립보육시설인데 단지 불교재단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자가 관찰한 결과도 연꽃어린이집은 표준보육과정을 근간으로 운영하고, 부모들의 요구로 특별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등 다른 공립, 민간어린이집과 큰 차이가 없었다.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된 보육이념인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점은 당연한 것이었다. 공보육기관인 구립보육시설로서 국민의 세금이 원천인 공공예산의 지원을 많아 운영하고 받기 때문이다. 종교교육을 우선에 두고 보육활동이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그러나 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보육활동과 통합하여 실행함으로써 보육과정 목표와 불교의 가르침을 조화롭게 구현하고 있었다.

표준보육과정은 국가수준의 보육과정으로, 보육시설에서 운영해야 할 보편적 보육내용을 제시한 것이다. 보육목표로는 타인과 자신에 대한 존중, 자신과 다른 사람의 정서 인

17) 김은설 · 안재진 · 최윤경 · 김의향 · 양성은 · 김문정, 『보육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방안 연구』(보건복지가족부 · 육아정책연구소, 2009), 5쪽.

식, 주변과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 같은 보육목표는 불교의 핵심적인 교리와 닿아있는데, 자리아타의 보살행, 조화로운 관계 속에 공동체적 삶을 지향하는 사섭법과 연기론, 팔정도, 지혜 등이다. 따라서 보육과정 운영을 충실하게 하는 것은 불교의 가르침을 실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점은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다른 종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연꽃어린이집은 원훈을 “자비와 지혜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어린이”로 정해서 불교의 핵심적인 사상을 보육과 접목시키고 있었다. 또 기본생활습관 교육주제나 텃밭 가꾸기, 친환경 급식 등을 통해서도 보육목표의 실현과 함께 불교의 가르침을 내면화시키고 있었다.

셋째, 시설장과 교사 및 종사자들의 불교 신앙과 실천의지가 아동 보육활동에 은근하면서도 긍정적으로 반영되고 있었다.

전체 교사의 명상, 조리사의 아동에 대한 배려, 시설장의 텃밭 관리 등은 불교적 수행과 보살행 등이 반영된 행위였다. 특히 교사들의 명상활동은 자신의 종교를 떠나서 바쁜 일상 가운데에서도 한 인간으로서, 또 보육교사로서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더 가치 있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교사들 스스로도 명상을 통해 마음을 가다듬고 어린이들을 대하고 있다고 보고함으로서, 이곳 교사들의 인간적인 성숙과 교사로서의 성장에 명상이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최근에는 어린이들에게도 명상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인성교육을 도모하고 있는 현상은 명상의 효과가 성인은 물론 어린이에게도 크다는 것을 잘 말해준다.¹⁸⁾

이 어린이집의 조리사는 특히 인상적이었다. 어린이에 대한 배려, 친환경 급식에 대한 자긍심, 봉사 정신 등은 불교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살행을 실천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는 시설장의 태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기관장임에도 불구하고 솔선하여 청소하고 텃밭을 관리하며,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사들에게 위탁기관의 종교를 강요하지 않고 있었다. 권위보다는 솔선수범과 자리아타의 행동을 통해 불교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렇게 연꽃어린이집 구성원들은 불교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불교적 가르침을 실천하려하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위탁법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불교 신앙인의 실천태도와 다른 구성원들의 이해가 어린 아동을 보육하는 기관에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넷째, 위탁재단 사찰의 지원은 하나 운영에는 불간섭 한다는 태도로 공익과 불교사회복지가 동시에 구현되고 있었다.

18) 이수경, 앞의 책, 12쪽.

위탁재단 사찰의 주지스님은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의 일환으로 자라는 꿈나무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는 일에 보탬이 되고자” 이 연꽃어린이집 수탁운영을 신청했다고 한다. 불과 15분 거리에 재단 사찰이 있지만, 어린이집에 대한 사찰측의 요구는 거의 없었다. 시설장의 종교가 불교일 것과 초파일날 교사들의 봉사활동과 제등행사 참여 정도만을 요구하고 있었다. 시설장의 종교문제는 지난번 시설장이 다른 종교 신자여서 초기에 사찰 측과 다소 갈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실제 연구진이 확인한 바로도 재단 측에서 어린이들에게 불교적인 수행을 시키라거나, 교사들을 불교신자로 채용하라거나 등과 같은 요구가 전혀 없었다. 시설장도 교사채용 시 종교가 무엇인가는 전혀 묻지 않는다고 하였다(2010.9.3. 시설장 면담).

오히려 재단 사찰에서는 연 3~4회 정도 고구마나 감자 등을 보내주고 있었으며, 재단 전입금의 절반을 현물인 쌀로 대체해서 보내주고 있었다. 이 쌀로 인해 이 어린이집은 쌀을 거의 구매하지 않고 있었다. 재단 측의 이러한 태도는 이 어린이집이 공보육기관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특성을 많이 드러내지 말아야 하고 가능한 공공적인 특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도 작용한 것이다. 그러나 재단 사찰의 이러한 태도로 인해 기독교 신자인 부모가 망설임 없이 이 자녀를 보내고 기독교 신자인 교사도 거리낌 없이 재직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상에서 제시한 결론을 토대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불교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공보육기관장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불교적 요소를 포함하여 평가인증을 통과하지 못하거나 일반 부모들이 자녀를 기관에 보내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연꽃어린이집은 불교재단이 위탁운영하고 불교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공보육기관이지만, 평가인증을 통과하고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인정받고 우수어린이집 표창도 받았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국가가 제시한 평가인증 항목과 배점은 보육환경(10점), 운영 관리(13점), 보육과정(15점), 상호작용(11점), 건강과 영양(13점), 안전(10점), 부모와 지역사회와의 협력(8점)이다. 또 현장관찰 시에도 종교성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표준보육과정을 근간으로 보육활동을 충실하게 운영하는 연꽃어린이집이 모든 평가를 통과하고 표창도 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국가가 제시한 보육방침을 충실하게 최우선적으로 따르기 때문이다. 또 현재 우리나라는 부모가 기관을 선택하는 바우처 제도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들은 이미 불교재단이 위탁하는 기관이고 공보육기관임을 알고 선택한다. 기독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보내고 있는 연꽃어린이집의 부모들은 불교재단이 운영하지만, 공보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을 추구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들어오려고 대기하고 있는 어린이가 있는 연꽃어린이집의 사례를 통해 공보육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할 경우에는 종교재단의 운영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불교재단은 위탁을 받을 경우 공보육기관이기 때문에 불교적인 요소를 포함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있다. 그러나 앞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공보육기관이 운영해야 하는 표준보육과정은 국가가 제시한 것으로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불교의 가르침과도 맥락이 닿아있다. 팔정도, 사섭법, 육바라밀, 삼학 등의 불교교리가 어린이 불교 교육과정과 연계됨을 기술하고 있는 학자들도 있다.¹⁹⁾ 또 연꽃어린이집에서 보여준 초과일 관련 활동이나 교사들의 명상활동 등은 기독교를 종교로 하는 가정이나 교사들이 반발 없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불교신앙을 가진 부모들은 불교적인 요소가 너무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고, 또 소수의 다른 종교를 가진 부모들은 한두 가지 미미한 불교적 활동에 가끔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적인 요소와 보육활동을 잘 통합하고, 서로 일치하는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경우에는 공공성 추구하고 불교적 가르침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불교계는 복지재단의 설립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증가할 공보육기관의 위탁에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기관을 지혜롭게 운영한다면 국가 사회의 공익을 도모하고 불교사회복지의 실현에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9) 황옥자, 앞의 책, 252쪽.

참 고 문 헌

- 관계부처합동.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2011-2015) 기본계획 시안 주요내용』. 대한민국정부. 2010.
- 권은주·강성희. 『불교 생명존중 유아교육프로그램』. 서울: 양서원. 2003.
- 김오순. 「원불교와 아동교육」 『종교와 아동교육』. 한국종교교육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009.
- 김은설·안재진·최윤경·김의향·양성은·김문정. 『보육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방안 연구』.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연구소. 2009.
- 김지현. 『불교명상프로그램을 통한 유아정서발달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3.
- 대한민국정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새로마지 플랜 2010』. 2006.
- 미산. 『초기경전 강의』. 서울: 명진출판. 2010.
- 박상란. 「영유아 복지 증진을 위한 카톨릭 보육의 실태와 과제」. 『영유아보육을 위한 종교계 사회복지의 실태와 과제』. 재단법인 청호불교문화원 제6회 사회복지학술세미나 자료집. 2008.
- 보건복지부. 「제31조 평가인증의 실시」.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보건복지부. 2010.
- _____. 「제29조 보육과정」, 『영유아보육법』. 보건복지부. 2010.
- 서문희·신나리·이은영.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 강화 방안』. 여성가족부. 2007.
- 서운. 「영유아 복지 증진을 위한 원불교 보육 실태와 과제」. 『영유아보육을 위한 종교계 사회복지의 실태와 과제』 재단법인 청호불교문화원 제6회 사회복지학술세미나 자료집. 2008.
- 안도 오사무. *Psychiatry of Meditation*. 김재성 역. 『명상의 정신의학』. 서울: 민족사. 2009.
- 이수경. 『어린이 인성교육을 위한 자연명상 프로그램』. 서울: 양서원. 2006.
- 임재택. 『생태유아교육 개론』. 서울: 양서원. 2005.
- 황옥자. 『불교아동교육론』. 서울: 불교시대사. 2007.

원고접수: 2010년 10월 8일 1차심사: 12월 3일 게재승인일: 12월 10일

연구자소개: 나정

- ① 전공: 유아교육/소속: 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
- ② 관심영역: 유아교육보육정책,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 ③ 주요논저: 『한국의 유아교육과 보육정책』, 『OECD 국가들의 유아교육과 보호정책동향』, 「UNICEF 아동권리보호 최소기준에 비추어본 우리나라 영유아교육보육의 위치와 과제」
- ④ E-mail: nana34@hanmail.net

연구자소개: 김영연

- ① 전공: 유아교육/소속: 동국대학교 불교아동교육연구소
 - ② 관심영역: 생태유아교육
 - ③ 주요논저: 『도시와 농촌을 이어주는 아이들』, 「유아교육기관의 도농교류활동에 관한 문화기술적사례 연구」
 - ④ E-mail: dbwjsry@hanmail.net
-

Abstract

A Study on Buddhistic Elements in Public Childcare Center

Na, jung

Dongguk University

Kim, Yeongyeon

Dongguk University

This research was held to learn some implications for the operation of public childcare centers run by Buddhist foundation, which appear to be increased from now on. This research covers the harmony between standard childcare curriculum and Buddhistic elements in public childcare center run by Buddhist foundation. For this purpose, this research analyzed reference materials about childcare and observed a class in a public childcare center located in Seoul run by Buddhist foundation for 80 hours in september and October 2010, and also interviewed 12 practician and 6 children.

As a result, a public childcare center tentatively named 'Lotus childcare center' demonstrated that they can carry out their duties as public childcare center, while teaching Buddhism's core lessons integrated with childcare activity, at the same time. Therefore, if childcare center run facilities wisely, it will be a great opportunity to earn public interest and Buddhistic social welfare. So this research suggest that we should spur the establishment of Buddhist foundations and be more concerned about the increasing trust of public childcare centers.

Key words : public childcare centers, standard childcare curriculum, Buddhism